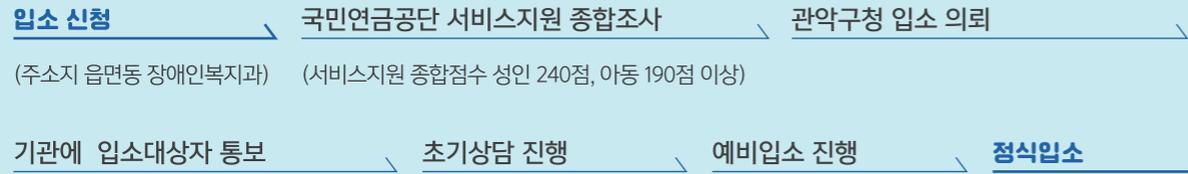




실로암효명의집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앞장서며
입소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소절차



가온다솜

43호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로 마음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지나온 한 해의 수고를 다독이며
새해에는 더 많은 웃음과 평안이
우리의 일상 속에 천천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함께여서 든든하고, 함께여서 희망이 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미션

우리가 선택하고 만드는 함께 걸어가는 삶
“말하다, 이루다, 빛나다”

비전

모든 거주인이 인격 주체로서 존중하며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실로암효명의집, 2030



01

거주인 중심의 개별화 체계 활성화

개별 서비스 통합지원 계획 강화
거주인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
직원전문성 강화



02

건강관리 체계 강화

의료지원체계 강화
거주인 중심의 재활치료 강화



03

시설 환경 개선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
노후 설비 보강



04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지역유관기관 연계
후원홍보활동 확대



가온다솜 43호 CONTENTS

- | | |
|-----------------|-----------------------------|
| 02 미션·비전 | 10 칭찬릴레이 |
| 03 시설현황 | 11 거주인의 따뜻한 이야기 |
| 04 실로암칼럼 | 12 효명의집 설날 풍경 |
| 05 신규프로그램 | 13 따뜻한 손길(부르신교회) |
| 06 현장포커스(백수연잔치) | 14 도움의 손길 |
| 07 베스트 포토상 | 15 나눔이 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
| 09 핫이슈 | |

법인명	법인대표	시설명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김선태 목사	실로암효명의집
원장	거주인 현원/정원	직원 현원/정원
박은애	28명/30명	34명/33명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박은애
발행처 실로암효명의집
전화 031) 876-2900 팩스 031) 876-2990

통권 43 호
편집인 김호직, 장혜승, 전승미
주소 (1142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 656
홈페이지 <http://www.silwelnh.or.kr>



돌봄은 소유하는 것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는 난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스님은 난 화분 두 개를 선물로 받아 정성껏 가꾸며 지냈다고 한다. 그렇게 삼 년이 흘렀다. 어느 해 여름 장마철, 난초를 뜰에 내어놓은 사실을 잊은 채 외출하게 되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에서 축 늘어져 있을 난초의 모습이 떠올라 스님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난초는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샘물을 길어다 적셔 주자 겨우 고개를 들기는 했으나 생기를 완전히 되찾지는 못한 듯 보였다고 한다.

스님은 이 일을 통해 ‘집착’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깨닫고, 그 난초를 돌려 온 친구에게 보내 주었다고 한다. 삼 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有情), 곧 마음을 가진 살아 있는 존재를 떠나보냈음에도 서운함이나 허전함보다 홀가분함이 앞섰다고 회고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특히 돌봄의 현장에서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집착은 분명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돌봄은 애착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애지중지하지 않으면 책임도 생기지 않고,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공허해진다.

유정(有情)을 떠나보내며 홀가분함을 느끼는 상태가 삶의 이상이 된다면, 돌봄의 자리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돌봄은 때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사람을 지치게 하며, 쉽게 내려놓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바로 그 무거움 속에서 돌봄은 삶의 자리를 지켜 낸다.

인간은 홀로 완결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 나아가 삼라만상(森羅萬象)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유정(有情)뿐 아니라 무정(無情)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손쉽게 털어버릴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는 없다.

돌봄이란 버릴 줄 아는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선택이다. 가벼워지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무거워짐을 감수하며 함께 가는 일이다. 그 의미에서 돌봄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소유이며, 집착이 아니라 책임이다.

돌봄은 가벼워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함께 무거워질 줄 아는 용기, 그 안에서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이 돌봄의 삶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실로암효명의집 원목 김무경

지역사회 동参与活动

따뜻한 차와 족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 입소한 거주인이 시설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평소 다양한 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주인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매칭하여 자연스러운 사회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심리적 안정 및 시설에 대한 신뢰 형성과 적응을 촉진하였습니다.



치유농업

계절별로 접할 수 있는 농작물 재배 활동과 반복적인 감각 중심의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력과 소근육 사용 능력, 일상생활 기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공동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 증진은 물론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종숙 어르신 백수연 잔치



7월 23일, 실로암효명의집에서는 존경하는 정종숙 어르신의 99세 생신을 맞아 뜻깊은 백수연 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실로암효명의집 가족들과 정종숙 어르신의 가족분들을 모시고 따뜻하고 정겨운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종숙 어르신의 99세 생신 축하드려요

고운 핑크빛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정종숙 어르신께 박은애 원장이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해 드렸으며, 이어 케이크 커팅을 통해 백수연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큰손자 내외분과 갓 돌이 지난 증손자가 함께 자리해 백수연 잔치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기 손님은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잔치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실로암효명의집 직원들은 '어머니 은혜'를 합창하며 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다 함께 큰 절을 올리며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였습니다. 이에 정종숙 어르신께서는 해맑은 미소로 인사 말을 전하시며, 본인의 건강보다 실로암효명의집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먼저 걱정해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셨습니다.

축하공연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참석자 모두가 잔치상을 함께 나누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종숙 어르신께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실로암효명의집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실로암효명의집 가족 모두는 어르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찰나의 기록, 영원한 기억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1

7월

“함께하는 치유농업,
함께 나누는 건강”



꽃향기를 맡으며 치유를
느끼는 시간



부르신 교회 후원으로 진행된
면역 주사 접종

시각장애거주인 하계수련회

8월

“계곡물보다 시원한 웃음,
함께라서 더 든든한 여름”



발달장애거주인 하계수련회

9월

“보랏빛 달콤함에 물들고,
따뜻한 대화에 마음을 열다”



포도따기 체험



찰나의 기록,
영원한 기억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2

10월

“보름달처럼 밝은 미소,
더 선명하게 마주하는 내일”

추석행사



실로암안과병원
이동진료

11월

“가을 산의 색채에 물들고,
이웃의 사랑으로 온기를 입다”

김장체험



12월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함께 꿈꾸는 새로운 시작”

송년행사



소요산 나들이



피복구입



2025년 효명의집은 다양한 외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거주인 여러분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세상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효명의집이
달라졌어요!

☑ 휠체어 리프트 차량선정(스타리아)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발”

휠체어를 이용하는 거주인분들도 이제 더욱 안전하고 편
안하게 외부 나들이와 병원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이동의 제약이 줄어들며 외부 활동 접근성이 높아
졌고, 다양한 문화생활과 사회 참여의 기회도 함께 확대
되고 있습니다.



☑ 보일러 및 온수통 교체

“사계절 내내 온기와 안전을”

겨울철에도 따뜻한 실내 온도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지키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보장합니다.

☑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노후 침대 전면 교체

“꿀잠을 부르는 편안한 휴식”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척추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침대
숙면을 통한 신체적·정서적 회복력 증진
쾌적한 수면 환경으로 일상의 활력 충전



☑ 배연창 교체

화재 등 비상시 유독가스를 신속히
배출하는 최신 배연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주인분들이 24시간 안심하고
머무실 수 있는 ‘안전 무결점’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집니다
안정적인 난방으로 쾌적한 겨울나기
최신 안전 시스템으로 화재 대응력 강화
365일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

☑ 효명의집이 약속합니다.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일상

거주인 여러분이 매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세심한 변화가
우리 가족의 하루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항상 거주인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효명의집이 되겠습니다.



“고마움과 칭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더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마음을 전할게요~



아침에 출근하면 언제나 밝고 힘찬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이영숙 선생님은 주변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사성이 바르고 밝고 명량한 성격 덕분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 이영숙 선생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납니다. 항상 옆에서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애교 있고 정감 어린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친근함을 전해 줍니다. 작은 이야기에든 귀 기울이며 공감해 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밝은 에너지와 배려로 실로암효명의집을 더욱 밝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이영숙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고마움과 칭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효명의집 거주인 김인경

김금선 선생님은 효명의집에 근무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며 세심하게 살피주시는 분입니다.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살피는 모습에서 따뜻한 배려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불을 정성껏 덮어주고, 다정하게 다독이며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로 예의 바르게 대해주어서, 함께 있는 시간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효명의집이 더욱 포근한 공간이 되고 있기에, 진심을 담아 칭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효명의집 거주인 이승옥

감사한 마음을 작은 손길 하나하나 전할게요~



안녕하세요. 실로암효명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순희입니다.

묵은해가 저물어 가고, 새 희망을 품은 병오년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앞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과 설렘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말처럼, 우리 실로암효명의집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목표를 향해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 위에 새해의 희망이 찬란한 햇살처럼 비추어, 효명의집에 더욱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양떼구름이 넓게 펼쳐지듯, 우리 실로암효명의집도 희망으로 수놓아져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일심단결하여 “공유, 공전, 공감”의 가치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 간다면, 대화 속에서 뜻이 모아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함께하고, 웃음과 사랑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서로를 더욱 단단히 이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실로암효명의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더 좋은 명절

설날 인사,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설날 아침, 효명의집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큰 말이 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잘 지내셨지요” 하고 건네는 한마디가, 명절의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어 줍니다.

웃놀이 말판 위에 모인 웃음

설날 행사로는 웃놀이를 함께합니다.

일반 웃으로 진행하되, 생활지도원 말판을 놓고 함께 참여합니다. 거주인들은 머릿속으로 말을 계산해 “이만큼 갑니다” “여기입니다” 하고 알려 주고, 교사들은 그 말을 따라 말을 옮기는 방식으로 놀이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승부가 아닙니다. 웃을 던지는 소리, 서로 확인하는 짧은 대화,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웃음이 그날의 설날을 완성해 줍니다.

노래교실, 명절의 끝을 따뜻하게

웃놀이가 끝난 뒤에는 노래교실이 이어집니다. 익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박수치고, 서로의 목소리에 맞춰 리듬을 타다 보면 명절의 시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잘 부르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부르고 함께 웃습니다.

효명의집의 명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가 날마다 설입니다.



부르신교회 자원봉사자

안녕하세요! 부르신교회입니다. 실로암효명의집과 인연을 맺은 지 꼭 1년 만에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만남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이 시간을 위해 아이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처음 만져보는 악기들로 찬양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설거지, 청소기 돌리기, 빨래 개기, 신발장 정리 등 집안일을 도우며 용돈을 모아 어르신들께 드릴 꽃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떠올리며 아이들은 연습과 집안일 모두를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방문 당일, 환영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이것이 함께하는 행복이구나”라는 뿌듯함과 따뜻함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더욱 필요한 겨울입니다. 온기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 그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존재만으로도 실로암효명의집이 생명력 있고 따뜻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따뜻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도 재미 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나눌수록 행복이 커진다고 합니다.
 한분 한분의 정성들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루며 그 큰사랑이
 우리 효명의집 거주인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힘이 됩니다.



후원 안내 ☎ 031-876-2900 계좌번호 :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효명의집

- 일반 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효명의집
- 결연 후원** 어르신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 물품 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 해피빈** 실로암효명의집 검색 후 기부 가능 
- 후원 혜택** 후원자(단체)께서 복지관에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소득세법(제34조)과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제88조의4), 법인세법(제24조)에 의거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위: 원)

후원금 결산보고(2025년 7월~12월)

세입		세출	
이월금	14,666,049	사무비	12,847,195
지정후원금	225,900	재산조성비	6,269,100
비지정후원금	32,166,000	사업비	4,946,090
외부지원사업비	11,300,000	외부지원사업비	11,300,000
합계	43,691,900	합계	35,362,385

후원자 현황(7월~12월)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2025년 7월~12월)

단체 KB양주회천(국민은행), 김경훈(강인테크), 아워홈, 태원엘리베이터(주), 해피빈, 주람, (주)녹십자 웰빙, 부르신교회

개인 강하라, 고선화, 광예은, 권 수, 권순현, 김경민, 김경애, 김경인, 김광훈, 김금선, 김두선, 김무경, 김미경, 김민재, 김보현, 김선태, 김아름, 김영서, 김영화, 김은철, 김은희, 김재훈, 김태응, 김태훈, 김호직, 김호진, 노형지, 도윤희, 마지안, 무 명, 박성일, 박 솔, 박수현, 박용순, 박은애, 박인수, 박정영, 서애리, 서예인, 신혜경, 엄현희, 오은희, 오창래, 유병숙, 유연희, 유홍진, 윤보라, 윤성재, 윤찬호, 이강일, 이다윗, 이민숙, 이보라, 이순희, 이승욱, 이시은, 이영숙, 이영순, 이영태, 이정원, 이정현, 이창진, 이한나, 이해지, 임영희, 임재희, 장은경, 장혜승, 전승미, 정구연, 정유진, 정진아, 조성일, 조은지, 조정희, 주재은, 진순복, 최동익, 최상미, 최영아, 최영훈, 최준호, 편보영, 한승진, 한재근, 한재준, 함요한, 함은창, 함지훈, 함현식, 홍성현, 황선교

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자(Volunteer) - 세상을 움직이는 1% 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과 시간의 자발적 나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합니다.

- 신청 대상**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대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노력봉사 : 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보조(생활실정소, 안내보행, 말벗 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 문화행사봉사 : 거주인을 위한 문화행사 보조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등)
 - 전문봉사 : 전문기술 소유자의 능력을 활용한 봉사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 교육지원 : 거주인을 위한 교육훈련 보조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웃음치료 등)

신청 방법	01	02	03	04	05	06
	모집분야 확인	내방 및 전화상담	봉사영역 확인	봉사일정 협의	신청서 작성 및 교육	인증서 발급